

보도시점 2026.02.20 (금) 08:00 배포 2026.02.20 (금) 08:00

차세대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듣다 주영한국문화원 '차세대 작가전' 연계 프로그램 참여 작가와의 대화 진행

- 2025년 11월에 개막한 '차세대 작가전'의 참여 작가 3인과
작업세계 및 현대 미술의 담론을 관통하는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
- 젊은 한국 작가들이 국제 미술계에 소개될 수 있는 발판 마련해

-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 이하 문화원)은 지난 2월 19일(목) 2025년 <차세대 작가전: 떠오르는 목소리들(New Gen: The Emerging Voices)>과 연계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작가와의 대화(Artist Talk)'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젊은 한국 작가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세대의 다양한 예술적 목소리를 소개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는 노희영, 안상범, 이유민, 전우진, 조재, 조지훈, 주우진, 최수현 총 8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 이번 '작가와의 대화'에는 이유민, 주우진, 최수현 작가가 참여해 각자의 작업 세계와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차세대 작가들이 제 뜻을 펼치는 목소리를 듣는 일은 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토대입니다. 예술가들이 다양하고 중층적인 감정을 예술이라는 형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공감될 때, 한국미학은 21세기 시대사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이번 '작가와의 대화'에 참여한 세 작가는 영상, 설치, 텍스타일 등 서로 다른 매체를 활용해 예술의 가치, 디지털 환경에서의 가시성, 문화

적 신념 체계를 주제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 이유민은 디지털 플랫폼 환경 속에서 이미지의 소비와 삭제, 데이터화된 신체의 문제를 탐구한다. 알고리즘과 플랫폼 자본주의가 개인의 감각과 존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영상 작업을 통해 조명한다.
 - 주우진은 신화와 민속, 물질적 노동을 바탕으로 한 작업을 선보인다. 텍스트일과 오브제를 활용해 전통적 상징과 현대적 감각을 연결하며, 또 다른 인식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 최수현은 예술 제도와 시장 구조 안에서 가치가 형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다룬다. 블록체인 기반 소유권 실험, 작품의 보존과 오염을 둘러싼 논의, 예술 노동의 조건 등을 통해 동시대 미술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탐색한다.
- 행사는 전시 기획을 맡은 차재민 큐레이터의 기획 의도 및 전시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세 작가가 각자의 작업 배경과 문제의식, 제작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관객과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며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오갔다.
- 학생, 일반 관람객, 미술계 관계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행사에 참석한 마크 바움필드(Mark Baumfield)는 “동시대 한국 작가들의 작업을 직접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각기 다른 작업 방식이 공통의 문제의식으로 연결되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차재민 주영한국문화원 전시 큐레이터는 “<차세대 작가전: 떠오르는 목소리들>은 청년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국제 무대에 소개하고, K-컬처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전시”라며, “이번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동시대 한국 미술의 다양한 실천과 문제의식을 현지 관객과 공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와 국제 문화 교류의 기

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주영한국문화원의 대표적인 차세대 작가 지원 사업인 <차세대 작가전: 떠오르는 목소리들(New Gen: The Emerging Voices)>은 오는 2월 27일까지 주영한국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2025년 심사위원으로는 아이콘 갤러리의 다프네 추(Daphne Chu), 테이트 모던 국제미술부의 알빈 리(Alvin Li), 헤이워드 갤러리의 융 마(Yung Ma)가 참여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영한국문화원 공식 홈페이지 (www.kccuk.org.u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5 차세대 작가전> 전시개요

붙임 2. <2025 차세대 작가전> 전시작가 소개

붙임 3. <2025 차세대 작가전> 작가와의 대화 전경

| | | | | |
|-------|----------|-----|-----|------------------------|
| 담당 부서 | 주영국한국문화원 | 책임자 | 원장 | 선승혜 (+44)020 7004 2600 |
| | | 담당자 | 실무관 | 차재민 (+44)020 7004 2606 |



□ 전시개요

- (전시제목) 2025 차세대 작가전: 떠오르는 목소리들 (국문), 2025 New Generation Art Exhibition: Emerging Voices (영문)
- (일시/장소) '25.11.27.(목) ~ '26.2.27.(금) /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 개막행사: '25.11.27. (목) 18:00-20:00 / 주영한국문화원 로비
 - 작가와의 대화: '26.02.19. (목) 18:30-20:30 / 주영한국문화원 지하
- (심사위원) 영국 내 기관에서 활동 중인 큐레이터 3인
 - 다프네 추(Daphne Chu): 버밍엄 아이콘 갤러리 큐레이터이자 예술 프로듀서, 작가로, 최근 공예와 현대미술의 관계를 탐구한 전시 Thread the Loom을 기획하였다. 이전에는 개념미술가 리 밉웨이 (Lee Mingwei)의 스튜디오 매니저로 70여 개 국제 전시를 진행하였다.
 - 알빈 리(Alvin Li): 테이트 모던 국제미술부 큐레이터로, 테이트 모던 현대 커미션 이미레 전시를 비롯해 영국과 아시아 주요 미술기관에서 다수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frieze, Artforum, e-flux 등 국제 매체에 글을 기고하며, 베니스비엔날레 예술고문을 역임하였다.
 - 융 마(Yung Ma):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수석 큐레이터로, 양혜규 작가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역임하였으며, 파리 퐁피두센터와 홍콩 M+에서 현대미술 및 영상 부문 큐레이터로 활동하였다.

| 대표작 | 선정작가 |
|---|---|
|  | <p>노희영</p> <p>집단의 역사와 개인의 기억을 교차시켜 세대 간에 전이되는 트라우마와 감정의 흔적을 탐구한다. 일상 속 공간과 사물을 통해 상처와 회복의 양가적 감정을 섬세하게 시각화한다.</p> |
|  | <p>안상범</p> <p>자연과 기술의 얽힘을 주제로, 생명과 비생명, 질서와 붕괴의 경계를 영상으로 탐구한다. 기술이 생태 위기를 가속화하는 아이러니를 드러내며 새로운 시간 감각을 제시한다.</p> |
|  | <p>이유민</p> <p>자본주의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사라짐과 생존의 순환을 다루며, 인간성과 주체성의 붕괴를 성찰한다. 영상과 서사를 통해 기술이 감정과 신념을 대체하는 시대의 불안을 드러낸다.</p> |
|  | <p>전우진</p> <p>산업적 재료와 가정용 오브제를 결합해 젠더와 물질의 경계를 흐드는 조각 설치를 선보인다. 단단함과 부드러움, 남성과 여성의 상반된 속성이 긴장 속에 공존한다.</p> |



조재

기술문화의 가속 속에서 인식과 감각이 형성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회화와 조각, 디지털 이미지를 결합해 감각의 재조정과 사유의 '휴식'을 제안한다.



조지훈

조각을 변화와 적응의 구조로 바라보며, 이동성과 재구성을 통해 불확실한 세계의 생존 방식을 탐색한다. 맥락과 기능의 전환을 통해 사물의 의미와 기억을 새롭게 정의한다.



주우진

신화와 민속, 샤머니즘 등 비이성적 지식을 토대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상상과 변화를 모색한다. 버려진 재료와 상징적 이미지를 결합해 현대적 신화의 가능성을 열어낸다.



최수현

2022년 반고흐 <해바라기> 훼손 시위를 차용해 진품과 모방, 보존과 오염이 뒤엉킨 모순을 시각화했다. 이를 통해 미술관의 보호와 배제 대상을 질문하며 예술 제도의 권력과 역할을 재조명한다.

고화질 사진 링크: [‘차세대 작가전’ 연계 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